

# MZ는 '디저트 홀릭'

광주신세계·롯데백 광주점  
1~3월 디저트매장 매출 상승  
베비에르·함평 키친205 인기  
경주 명물 '십원빵' 팝업 열어  
편의점, 디저트 제품 출시 열풍

젊은층을 중심으로 빵과 케이크 등 디저트류 인기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유통업체가 다양한 디저트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지역의 유명 베이커리 유지는 물론 타 지역 인기 디저트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열어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업계도 유행하는 디저트를 자사 제품화해 선보이면서 매출 상승을 노리고 있다.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하 1층에 자리잡은 '베이커리·디저트' 브랜드의 올 1~3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8% 상승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는 전부 8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마왕파이' 등 다양한 시그니처 빵을 선보이고 있는 지역 브랜드 '베비에르'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크로플과 에그타르트, 쿠키 등 특색있는 브랜드의 디저트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도 지하1층 디저트류 8개 브랜드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4.5% 증가했다. 지역 대표 제과점인 '궁전제과'를 필두로 함평에 본점을 둔 딸기케이크 전문점 '키친205'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디저트류 인기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경주 황리단길 대표 먹거리인 '황금십원빵' 팝업스토어를 오는 13일까지 운영한다.

'황리단길에서 줄을 서서 먹는다'는 황금십원빵은 경주를 대표하는 디저트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는 황금십원빵을 1개 4000원, 3개 1만1000원, 5개 1만 7000원에 선보인다. 경주에 가지 않고도 경주 대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기회로 고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에 마련된 경주 황리단길 먹거리 팝업 스토어에서 '황금십원빵'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우리 전통 다과인 약과도 인기가 치솟으면서, 직접 자체 제작한 약과를 선보이는 업체도 등장했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SPC삼립은 프리미엄 전통 디저트 브랜드 '대한과자점'을 론칭하고 '조청 모약과'를 출시했다. 조청 모약과는 우리 밀과 우리 찹쌀로 만든 숙성 반죽에 국산 조청, 참기름, 계핏가루, 생강 분말을 추가했다.

최근 SNS를 통한 '약과 인증' 등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업체 제품이 잇달아 품절되는 등 약과 인기를 반영한 제품 출시인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업계도 앞다퉈 디저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 GS25는 프랑스의 아몬드 버터 케이크인 휘낭시에에 크림을 더한 퓨전식 디저트 '크낭시에'를 출시했다. 라이벌 회사인 GS25도 크낭시에 바닐라카라멜·황치즈를 출시한 뒤 오는 7일 쇼콜라·녹차커스터드도 추가로 선보인다. 크낭시에에는 휘낭시에 사이에 크림

을 채워 부드럽고 조화로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GS25는 설명했다.

앞서 GS25가 카페 빌로우와 협업해 출시한 크림까눌레는 3월 냉장 디저트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GS25는 다음달 7~30일 우리동네GS에서 크낭시에 배달, 픽업 주문 시 3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한다.

앞서 지난해 CU가 출시한 '연세우유 크림빵'은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2500만개를 넘어섰다. 연세우유 크림빵 역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탔는데 빵을 반으로 갈라 가득 찬 크림을 보여 주는 인증샷 열풍에 힘입어 품절 현상을 빚었다.

CU가 연세우유 크림빵 성공에 이어 고려대와 협업한 '고대빵'도 인기다. CU가 판매 중인 50여종의 디저트 중 연세우유 크림빵과 고대빵 시리즈가 차지하는 매출은 70%가 넘는다고 편의점에서 뜻밖의 연고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롯데백화점, 롯데온 백화점몰 직접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속도

롯데백화점이 이커머스 사업부로 넘겼던 롯데온 내 백화점 몰 운영권을 다시 가져왔다.

롯데온 출범 이후 온라인몰 시너지 강화를 위해 운영권을 넘긴 지 1년8개월여만으로 백화점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같이 선보이기 위한 차원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커머스 사업부는 전날부로 롯데온 백화점 몰 운영권을 백화점 사업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롯데온의 백화점 몰은 백화점 사업부에서 직접 상품을 소싱하고 브랜드와 마케팅도 관리한다.

기존에 운영을 맡았던 이커머스 사업부는 IT 등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한다.

운영권 조정은 커머스 중심으로 설계된 롯데온의 특성상 백화점 고객만을 위한 별도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롯데백화점은 기존에 상품 중심으로 구성됐던 페이지를 콘텐츠 중심으로 대폭 리뉴얼해 이달 말 새로 선보인다.

백화점의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라인몰에 프리미엄 상품을 보장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마케팅 전략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는다.

또 백화점 몰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오프라인 팝업을 온라인으로도 구현해 고객과 소통도 강화한다.

여기에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회원제를 도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화 서비스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화장품 샘플 신청하고 받아주세요"

신세계백화점, 16일까지

입생로랑 등 4만여개 증정

신세계백화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역대 최대규모의 샘플 증정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등 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브랜드와 수령 점포를 선택해 쿠폰을 받으면 해당

매장에서 무료 샘플을 받을 수 있다.

샘플은 4만여개로, 1인당 1종씩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본점 조마론 런던 매장에서는 한정판 제품을 새로 선보이고,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나만의 향을 추천해준다.

또 7~9일 경기점에서는 메이크업 쇼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에서 3월 한 달간 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했고, 따뜻한 날씨에 매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하이볼이 대세...편의점, 이색 하이볼 라인업 확대

GS25, 전년비 201% 매출 상승

세븐일레븐, 배민과 신제품 출시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탄산과 과일음료에 섞어 마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업계가 관련 '라인업'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GS25 하이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GS25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신규 하이볼 상품을 7종 도입했고, 이달에만 2종을 추가로 내놓는다.

6일 새로 출시하는 제품은 도넛 브랜드 노트드와 손잡고 만든 애플하이볼과 레몬하이볼이다.

지난 2월 일본식 튀김 오마카세로 유명한 식당 쿠시마사와 함께 선보인 하이볼은 출시 2주 만에 10만캔 넘게 팔리기도 했다.

GS25는 앞으로도 하이볼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짬하기 좋은 하이볼' 2종(얼그레이·체리복향)을 새로 선보인다.

제조사인 '스퀴즈브루어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효주를 기반으로 주정의 향을 사용하지 않고



배민 하이볼.

만들었으며, 배달의민족 서체를 활용해 패키지를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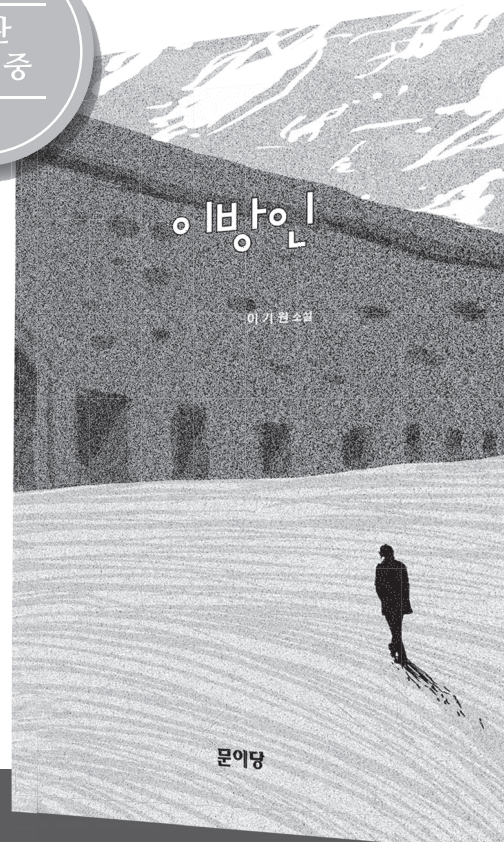
세븐일레븐은 특히 관광지에서 편의점 하이볼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의점 하이볼은 캔 형태로 완성돼 출시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조할 필요가 없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상반기 내 하이볼 상품 구색을 10여종으로 확대하는 등 하이볼을 전략 상품군으로 키울 예정이다.

/연합뉴스

절찬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